

청소년 14% “성폭력 당한 적 있다”

:: 이 세 라 토평고 2년(청소년 명예기자)

청소년 관련 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더해가고 있다.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폭력, 그리고 그 대처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나날이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관련 성범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성범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성범죄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관계당국에서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성교육이 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953건 가운데 13살 이하 어린이가 가해자가 된 비율이 6%로, 한해 전의 4.0%에 견줘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밝혔다. 14~19살 이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9.4%로, 1년 전의 8.1%보다 많아졌다. 피해자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2년 44.1%에서 지난해 45.7%로 다소 높아졌다.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소를 찾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아 성폭력 신고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작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의 상황은 이러한데, 청소년들에게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위의 또래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은 성폭력에 대한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나 가해자 쪽에서 서로 숨기려하기 때문에 사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는 사회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조심하는게 제일’

필자는 청소년들의 성폭력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G시의 중·고등학교 6곳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4.25%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조사결과 중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여학생은 시각적, 신체적, 언어적 영역 모두에서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언어적 영역에서의 음란 전화와 신체적 영역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만, 시각적 영역과 일부 언어적 영역은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성폭력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적 폭력성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성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은 것은 단지 느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불균형적으로 성폭력피해의 전수가 많은 것이 보여주듯이,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여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학생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

에는 남녀 모두가 ‘전문상담기관과, 친구, 가족에게 상담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중에서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므로 ‘혼자 알고 있겠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것은 피해자 학생의 경우, 자신은 피해자일 뿐인데 남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은폐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여학생 68%, 남학생 58%가 전혀 모르거나,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여학생 대부분은 엄중 처벌을, 남학생은 현행법에 의한 처벌 혹은 사회적 비난을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희박하며,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의 대처방법도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은 강했으나, 그에 따른 해결책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일단 조심하는게 제일’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3.2.2. 피해자 학생의 사회적응

사회적으로 피해자 학생을 감싸는 풍조를 만들고,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청소년이 대상이라면 엄중 처벌을 하여 성범죄가 점점 줄어드는 체제를 만들어야 성범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고 억울하게 당한 청소년들이 음지에서 좌절하고 낙오하며, 나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의 사회도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를 손가락질하고 질타하는 잘못된 풍토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진 바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동일한 생각일 것이다. 무관심으로 방치된 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아니라 원인과 대책, 문제점까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성폭력범죄.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루어서도 안 될 문제이니 만큼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이제부터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야 할 때’이다.